

후백제 역사문화, 전주 핵심컨텐츠로

시, 후삼국시기 왕도 전주 '후백제 역사문화 다올마당' 구성 발족 후백제 연구센터 건립·기자촌 지하물리탐사 등 실행방안 논의

전주시가 동고산성으로 대표되는 후백제 역사문화를 경기전 등 조선왕조 콘텐츠와 함께 전주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콘텐츠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전주시는 후백제 왕도(王都)로서 전주의 위상을 되살리고, 후삼국 중 가장 강성했던 후백제 역사문화를 복원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되살리며, 조선왕조 중심의 전주 관광에 후백제 역사문화콘텐츠를 추가해 관광자원을 다원화하기 위해 후백제 역사문화 다올마당을 구성·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역사학자와 문화재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후백제 역사문화 다올마당'은 이날 전주 시민문화센터에서 열린 첫 회의를 시작으로 후백제 관련 사업 발굴 및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통해 원도심 100만평을 아시아 문화심장으로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위원들은 후백제 역사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세부적인 밑그림을 그려내고 실제적인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등 후삼국 시기 왕도였던 전주의 역사문화 복원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다올마당 위원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후백제 관련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사업방향을 정립하기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또, 3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 나라의 수도로 역할을 한 전주의 역사와 가치를 오롯이 살려내겠다는 것을 다올마당 운영 목표로 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후백제 관련 사업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논의 △후백제 도

성 및 공성으로 추정되는 물왕벌과 기자촌 일원의 후백제 유적 조사를 위한 지하물리탐사 △후백제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연구·조사할 수 있는 전문 연구 기관인 후백제 연구센터 건립 등 후백제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후백제 역사문화 다올마당 위원들은 앞으로 후백제 관련 사업 방향 제시와 학술적 정립, 실행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후백제 왕도로서 전주 시민들의 인식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후백제 지자체 도시협의회 구축, 후백제 연구 센터 건립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ICT융합발전포럼은 23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전북지역 ICT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ICT융합 소통 강화를 위한 '2016년 전북ICT융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전주시 미래먹거리, ICT융합산업이 이끈다

시·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 ICT융합 소통 컨퍼런스 개최

전주시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빅데이터와 IoT(사물인터넷), 드론산업 등 첨단 ICT(정보통신 기술)융합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ICT융합발전포럼은 23일 전북 지역 ICT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ICT융합 소통 강화를 위한 '2016년 전북ICT융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ICT 융합기술과 산업 공존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정보화기술을 활용 도시를 경영하고 관리·운영하는 미래형 첨단도시 스마트시티 구축, 최첨단 탄소산업과 전자

기술, SW기술이 결합한 드론산업 육성 계획, 디지털 사니지 콘텐츠 기업 사례 등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이상호 한국생산성본부 수석은 '스마트시티 동향 및 제언'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강연을 통해 전북 스마트 시티 추진의 필요성과 방향, 서비스 모델 발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수석은 "'스마트 시티(Smart city)'는 도시 관리의 효율성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물인터넷과 인터넷통신, 자동제어, 빅데이터 등 정보화기술을 이용해 도시를 경영하고 관리,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형 첨단도시이자 지속가능한 네트워크형 도시'라며 "정부 주도의 하

향식 스마트시티는 거의 실현한다. 전북과 전주의 스마트시티는 주민 스스로 도시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만드는 사람 중심의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전북 드론산업 육성계획도 발표했다.

이회관 (사)캡티중합기술원 단장은 '전북 드론산업 육성 계획'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전북 드론산업의 자원현황, 수요분야별 실적 및 향후계획을 소개하고, 전북 드론산업 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단장은 이 자리에서 △ICT융복합 드론축구 개발 △탄소복합재 적용 보급형 농업용 드론 개발 △방재용 농업드론 실증 보급 △인명탐색·구조용 드론 개발 등을 전북 드론산업의 성과로 손꼽았다. /김영재 기자

“청년일자리 사업 형식적 행사 그쳐”

서난이 전주시의원 지적



되는 기본계획 수립은 전체적 방향성을 세우고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전주시가 단순히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를 들어 담당부서의 짜맞추기식 요식행위는 향후 전주시 청년 정책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고찰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원 30명 이상의 전주시 출연기관 8곳 중 2곳(전주푸드센터와 탄소융합기술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3% 청년구직자 고용 확대 부분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매년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할 의무사항도 전혀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은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비례대표)은 23일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 매년 수립돼야 할 전주시 청년 일자리창출 기본계획 수립이 요식행위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실태조사 역시 부실한 자체조사 형태로 이뤄지면서 전주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자체가 부실 계획과 엉터리 조사로 이뤄진 생색내기용 사업이라는 것으로 스스로 자인한 셈이"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서 의원은 "청년 일자리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 기본이

전주 새뜰마을마을축제 성황리 열려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인 전주시 승암마을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흥겨운 마을축제를 열었다.

전주시는 23일 전주생태박물관 앞에서 승암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암새뜰마을 마을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전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승암새뜰마을 조성사업'의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석한 주민들은 지난 하반기 동안 진행된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을 되돌아보고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겼다.

주요 프로그램은 실시일반 음식 나눔, 길놀이 공연, 주민 노래자랑 등으로,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마을축제로 이뤄졌다.

특히 승암마을 주민들은 이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을 내내 구슬땀 흘려 활동한 결과물로 이불과 목공 DIY를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주민들의 얼굴을 그려주는 캐리커처 부스도 운영됐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마을축제에서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 직접 음식준비를 도와주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주민주도형 새뜰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 도시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국비 28억원(70% 지원) 등 총 40여억을 투입해 기초인프라정비, 주민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 8경’ 배경, 창작공연 무대 오른다

25~26일 전통문화전당서

전주를 배경으로 한 미디어 영상과 공연과 미디어 매체의 융·복합 공연인 '전주 8경'을 25일과 26일 오후 7시 30분 전당 공연장에서 무대에 오른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은 공연과 미디어 매체의 융·복합 공연인 '전주 8경'을 25일과 26일 오후 7시 30분 전당 공연장에서 무대에 오른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합동마을문화생산지협동조합(대표 김영명)이 진행하는 이번 공연은 '미디어 영상+국악+연희'가 결합된 융·복합 창작 공연이다.

한 여인의 삶을 통찰하며 스토리가 전개되는 국악연주회 '전주 8경'은 기린봉, 한벽루, 전주천변, 남부시장 등 전주의 아름다운 8곳의 공간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계획이다.

이번 공연은 국악이 담고 있는 음악의 전통과 미디어가 담고 있는 전주만이 가지는 지리적 특성이 연결되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또한 8경의 이미지만을 보여줘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발한 부분을 한 여인의 삶을 소재로 한 스토리 영상을 담아, 관객들로 하여금 주인공의 삶을 쫓아가며 깊은 감상에 젖어 들 수 있도록 구성 되었다.

이번 공연에는 총 3대의 프로젝트가

사용돼 평면적 공간을 최대한 입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으며, 영상이 투영되는 스크린 또한 일반 평면적 스크린의 틀을 깨고 새로운 모양의 스크린이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공연에 연주되는 곡은 합동마을 예술감독 김형태씨가 작곡을 맡아 진행했으며, 합동마을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도록 새로운 리듬과 연주기법을 창작해 주목된다.

합동마을문화생산지협동조합은 올해 진행된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전주 전통놀이 '기집놀이'로 영예의 1위를 차지한 단체로, 전주의 전통성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관련 문의는 063-236-1577(합동마을)로 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군산 주택서 화재...1명 사망

군산지역 주택에서 불이나 80대 할머니가 숨졌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5시40분께 군산시 성산면의 신도(89·여) 할머니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신 할머니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불은 주택 전체와 인근 주택의 일부를 태워 소방서추산 16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